

1. 전남의 의병봉기와 백낙구 의병

1) 전남의 제1차 의병

제1차 의병은 대체로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진라도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졌는데, 그것은 불과 1년여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제1차 의병은 장성과 나주의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여 장성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 1846~1916)이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 1798~1879)의 손자이자, 제자였다. 장성의병은 주로 기정진의 문인들이 적극 가담하였는데, 기삼연(奇三衍)·고광순(高光洵)·김익중(金翼中)·정의림(鄭義林)·이승학(李承鶴)·기재(奇宰)·박원영(朴源永)·기우익(奇宇益)·김양섭(金良燮) 등이 그들이다.¹⁾

장성의병은 개화파의 득세와 고종이 환궁하지 않은 점 등을 창의(倡義)의 명분으로 내세워 1895년 음력 1월경에 봉기하였다. 비록 단발령은 철회되었지만, 국가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기우만 등은 장성향교를 본거지로 삼아 의병을 모았다. 이들은 200여 명의 대오를 편성한 후 나주로 향하였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을 막아낸 천연의 요새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성의병은 나주의병과 연합, 북상하여 근왕(勤王)하려는 것이었다. 나주향교에 도착한 기우만 등은 개화파 참서관(參書官) 안종수(安宗洙)를 처단한 나주의병과 향후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유명한 김천일(金千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으며, 고종에게 의병봉기를 알리는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장성의병은 나주의병을 주도하는 이족(吏族)들과 주도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 같다. 신분 차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성의병은 나주에서 광주향교로 이진(移陣)하여 북상할 준비를 갖추었다. 바로 이때 선유사 신기선(申箕善)이 광주에 내려와 의병의 해산을 중용하였다. 장성의병은 국왕의 해산조치를 지닌 선유사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들은 대부분 명분을 중시하고 근왕의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장성의병은 비록 창의의 의지를 굽혔지만, 전남에서 가장 먼저 창의한 의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나주의병은 양반 유생과 이족들이 힘을 합하여 의진을 결성하였다.²⁾ 나주향교의 동재(東齋)에 집합한 이들은 의병장에 전 주서(注書) 이학상(李鶴相)을 추대하고, 100여 명으로 대오를 편성하였다. 의진의 결성을 주도한 양반 유생은 의병장 이학상, 중군장 이승수(李承壽), 참모 나병두(羅秉斗), 군량관 이원서(李源緒), 서기 임홍규(林鴻圭), 통문을 지은 이병수(李炳壽) 등이었다. 그리고 향리 중에 주도적인 인물은 정석진(鄭錫珍)·김창균(金蒼均)·김석현(金皙鉉)·박근옥(朴根郁)·김재환(金在煥)·김석균(金錫均)·박화실(朴化實)·장길한(張佶翰)·승갑표(昇甲杓) 등이었다.

당시 양반 유생들은 대체로 의진대표(義陣代表)·문부작성(文簿作成)·참모(參謀)·군량(軍糧)을 담당하거나 일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족들은 좌익장(左翼將)과 우익장(右翼將)을 비롯한 군무(軍務)를 맡았는데, 대부분 군사적인 임무를 띠었다. 따라서 향

1) 전라남도, 『全羅南道誌』7, 1993, 55~59쪽.

2) 홍영기, 「1896년 羅州義兵의 結成과 活動」, 『이기백선생고회기념 韓國史學論叢』下, 일조각, 1994.

리들이 의병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연리청(椽吏廳)에 창의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창의소가 나주향교에서 연리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참서관 안중수를 처단한 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즉, 김창균·장길한·승갑표 등의 향리들이 안중수와 순검 2명을 처단하고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박준성(朴準成), 세무주사(稅務主事) 복정채(卜正采) 등 6명을 가두었다. 그런데 부관찰사에 해당하는 참서관 안중수는 『농정신편(農政新編)』의 저자이며, 개화파 관료였다.³⁾ 그는 순검을 동원하여 나주읍민의 상투를 강제로 잘라버렸는가 하면, 불법적인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그가 나주읍민의 원성을 사게 되었으며, 향리들과도 갈등이 컸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나주향리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주의병의 주도권은 양반 유생에서 이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한편, 나주의병 역시 국왕에게 상소하여 기의의 목적이 근왕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세력의 구축과 개화정책의 반대, 그리고 국왕의 환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나주의병은 반개화·반침략적 근왕의병을 지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왕의 해산명령에 바로 순응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남지역의 제1차 의병은 장성과 나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찾아지지 않는다. 아마도 제1차 의병이 너무 빨리 해산된 데다 무력항쟁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단발령을 철회하여 의병의 명분을 없애고, 고종의 해산조치를 소지한 선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의 봉기를 막음으로써 제1차 의병은 자연히 소멸되었다.

3) 이광린, 「安宗洙와 農政新編」, 『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85, 220~233쪽.